

##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23 일 (2025 년 6 월 19 일)

**토라 부분:** 솔라크 (Shelach)

**주제:** 자신을 비난할때에

민수기 14 장 2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각각 다른 두 집단임을 시사합니다.

미드라시는 두 번째 집단을 산헤드린, 즉 장로 재판관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엘로힘의 응답을 하나의 우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한 왕의 재판석에 피고가 올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입을 열어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말을 발성 하였고, 그 말로 인해 그는 특정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다 생각하고, 피고가 직접 내뱉은 말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왕은 말하였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한 그 판결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시행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록하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광야에서 너희의 시체가 쓰러질 것이다” 라고 민수기 14:28-29 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왕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 판결을 내렸듯이, 엘로힘(권능자)께서도 백성이 발설한 원망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 곧 자신들에게 내릴 형벌을 먼저 ‘선택’한 것이기에, 엘로힘께서는 그들의 발설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르 예헤즈켈은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 합니다: 이 징벌은 엘로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엘로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은 전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결정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엘로힘의 인애하심 (רַחֵם - 헤세드)을 본받아 타인에게 인애함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는 인애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호와 엘로힘께서도 그를 인애하심으로 대하시며, 샤마임으로부터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을 그 때에, 그들은 그들이 어떤 민족이 되어버렸는지를 그 발설할 때에 스스로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곧, 엘로힘께서 주신 크나큰 선물인 이스라엘 땅을 거부하는 민족으로 스스로를 제한 시킨것입니다. 엘로힘께서는 그들이 그 입으로 발설한 말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의 선택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에레츠(땅) 이스라엘과 그 내면적으로는 이미 단절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며, 판결은 그에 따른 것이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 A Daily Bread

람반은 민수기 14 장 18 절에서 이러한 의미를 더하여 설명합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 모세가 드린 기도는, 여호와의 속성을 선포한 금송아지 사건 이후 드렸던 기도 곧 여호와의 13 가지 자비의 속성에 기초한 간구의 말씀 과는 그 말씀이 다른 구조로 성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세는 선진들의 공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된 유산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유업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르 예헤즈켈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엘로힘의 13 가지 자비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자비의 속성에 호소할 자격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조상들의 유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였기에, 모세는 그 공로에 의지하여 간구를 올릴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그 자신들이 판결을 내렸고, 그들이 땅을 비방하며 발설 한 말들은 그들이 그 조상들의 공로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봅시다: 의의 길을 걸으셨던 현인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의인들과 달리, 다가 올 엘로힘의 왕국, 마쉬아흐의 왕국에 까지 쌓이지 않고, 단지 이 현세계에서만 주어집니다 (신 7: 9-10; 막 10:29-30).

이는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케이 아보트(선진들의 도덕) 책의 4 장 17 절, 그리고 나짜림 갱신서를 통하여 전해 주시는 가르침에 따르면, 내세의 단 한 순간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합친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실제로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막대한 빛의 가치를 지닌 여호와의 ”계명준행“에 대하여 내세의 영원한 보상을 단지 현세에서 “동전”만큼 정도의 보상만을 받는 통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보서는 안됩니다.

매호흡을 내 쉬면서 이루는 모든 공로가 곧 자비의 여호와 이심을 알고자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공을 돌릴때에, 소도 주인을 알고 순종하겠만 교만함으로 영원한 내세까지 방산하는 빛의 몫을 교만의 영에 속아서 다 놓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에 따라서 잉과응보적 대가를 치루거나, 보상을받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운행하도록 여호와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창조주를 찾고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세속적 쾌락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여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방식, 즉 현세에서의 받고 누릴 보상만을 추구하여, 스스로의 한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물질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며, 오직 내세에 받을 수 있는 보상, 빛에 소망을 둡니다.

## A Daily Bread

이처럼 보상과 응징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과 분별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사람은 스스로를 발설한 말로 징벌을 받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발설한 말로 인하여 죄를 벗고 보상의 길을 들어 설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알 섘 토브는 그러하기에 일단은 사람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흔히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를 정죄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알 섘 토브는 따라서 덧 붙이시기를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실 때, 그 사람 자신이 그 판결에 동의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 하십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본인이 지었던 유사한 죄를 지은 타인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타인을 곧장 정죄한다면, 그는 그 벌에 동의한 것이 되며, 그 자신도 같은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듯이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즉각적인 정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악한 충동(yetzer hara)에 저항하지 못하고 죄를(빛에서부터 떨어져 나감)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타인을 호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호의적으로 판단 받게 되며, 그 결과 여호와 엘로힘께로부터도 자비롭고 긍정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당신의 순결하심을 보이시며 빼뚫어진 자에게는 당신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여호와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8:24-27)

샬롬